



# 한라일보



漢拿日報 제886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http://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음력 4월 16일)

## 4·3트라우마센터 설립 道-정부 ‘엇박자’

### 제주도, 치유·요양 복합치유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정부, 국가 트라우마센터 구상... 광주 등 후보지 “유사사업으로 설득 논리 약화... 중앙기조 고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하면서 설립 계획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과 제주의 계획이 유사한데도 따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평화공원 내 유희부지에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요양·치유·수련관 등의 기능을 갖춘 4·3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희룡 제주도정 민선 7기 공약으로, 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 중에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담당할 트라우마 치유센터 기능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올해 계획한 ‘4·3 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국비 예산안 3억 6000만원이 지난해 삭감된 데다, 올해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용 15억원

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의 지자체를 후보지로 두고 ‘본원’과 ‘지부’ 형태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상당히 구체화됐다.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광주가 손꼽히면서 제주도는 지자체 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사업 성격이 비슷한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 논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기조에 맞춘 계획이 주문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 확정 보도가 나오었지만 정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며 “아직 공식 문서가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안부가 4·3 유족을 만나 용역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별도로 할 것이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복합센터 설립 계획을 담은 4·3평화공원 활성화 계획이 오는 6월 말쯤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중앙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mailto:sj@ihalla.com)

## 대중교통 기반 통합 첨단안전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줄임타미·대응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제주에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통합 첨단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19년 정보통신 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분은 ‘대중교통 기반 통합 사물인터넷(IoT) 첨단안전 시스템(줄임타미 및 대응서비스) 구축 사업’(이하 대중교통 줄임타미 및 대응서비스 구축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안전자 줄임타미 및 긴급대응 서비스 안정화,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확대 등 첨단안전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18억원을 투입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정확한 차선단위 위치관제와 스마트밴드

통합 운전자 맥박 확인, 안면·시선의 상태 파악(DSM), 전방 충돌감지와 차선이탈(ADAS) 등 첨단안전장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줄임타미 및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체계(e-Call)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시범대상은 제주 시 공공버스 97대다.

올해는 국비 10억원, 지방비 6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ICT 기반 실증서비스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는 시간대별, 노선별, 구간별로 운행패턴 모니터링을 통해 무정차·난폭운전 등 운전자의 패턴을 분석해 안전운행 품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에는 지난해 제외됐던 서귀포시 공영버스 10대가 포함됐으며, 줄임타미용 동공센터 120대, 운전자 맥박을 체크하는 스마트밴드 200대를 공급한다. 이소진기자

## 꼭지벌레류 방제 제주형 신기술 개발 2021년까지 개발 추진

친환경감귤 재배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꼭지벌레류를 방제하기 위한 제주형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1년까지 꼭지벌레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제 대상은 루비꼭지벌레, 굽애가루꼭지벌레, 이세리아꼭지벌레 등 3종이다.

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일부 감귤원에서 꼭지벌레류 방제에 무당벌레류 등 상업화된 천적을 이용하고 있지만, 현장 이용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방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천적을 이용해 특정 해충을 방제·관리하는 사례는 선진국에 있지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 사례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원은 사업 추진 2년차인 올해 유용 천적 곤충 선발과 생물적



파란 하늘 수놓은 일곱 빛깔 무지개 비가 그친 18일 오후 제주시가지 상공에 형형색색의 무지개가 떠올랐다. 선명한 일곱 빛깔의 무지개 강희만기자

특성을 규명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도내 꼭지벌레류 해충의 자연 발생하는 천적 곤충의 종류와 분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루비붉은강총종벌 등의 6종의 천적 곤충을 확인했다.

2020년에는 천적 곤충 대량 생산을 위한 사육·이용 매뉴얼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실증시험을 추진한다.

한편 꼭지벌레류는 몸체가 단단한 딱지나 밀랍으로 감싸져 있어 방제 적기를 맞추지 않으면 작물보호제로

도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다. 특히 감귤나무 수액을 흡즙하는 직접적인 피해와 감로를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심하면 낙엽 또는 가지가 고사하기도 한다. 이소진기자

## 기초생활보장 가구 급증

### 기초생활보장 27%·보호결정 75% 늘어 도 “적극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27%, 보호결정 가구는 7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기준 신청 1955 가구·보호결정 800가구이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신청 2498가구·보호결정 1402가구로 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돼 사회보장 인지 욕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권리구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728-2481) 서귀포시(760-651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고대호기자

www.beanedu.net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브랜드파워대상  
아름다운 도전

Bean EduCulture  
빈에듀컬처

CS마인드·스피치·이미지메이킹·면접스킬·소통공감·인문학강연  
의회의정연수·청렴(부정부패방지)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학술연구용역&컨설팅·BSC평가·역량강화·행사(축제)사회 등

빈에듀컬처 | 독일로렐라이와인제주센터  
대표 장 빈

제주시 복지로 복길 2-15, 202(도남동) T. 064)713-1070 F. 064)713-1073 E. jjsun@hanmail.net